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7. 4. 30 ~ 5. 7(6박8일)
- 방 문 국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연 수 단 : 15명(의원 11, 공무원 4)

구 미 시 의 회

목 차

I. 해외연수 개요	1
○ 연수목적	1
○ 연수기간	1
○ 연수국 및 주요 방문지	1
○ 연수자 명단	2
○ 연수 일정	3
II. 연수국 소개	4
○ 프랑스	4
○ 스위스	10
○ 이탈리아	13
III. 연수국 주요 방문지	23
○ 파리 하수도 박물관	23
○ 파리 신도시 라데팡스	24
○ Rebwies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26
○ KVA 쓰레기 소각장	28
○ 로마시청 방문	30
○ 카타콤베 (핍박받은 종교인들의 지하 무덤)	31
IV. 연수 후기	33

I. 해외연수 개요

□ 연수 목적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서유럽 3개국의 주요도시를 견학 함으로써
선진 사고 습득은 물론,
- 전문성 향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정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연수 기간

- 2007. 4. 30 ~ 5. 7(6박 8일)

□ 연수국 및 주요 방문지

○ 연 수 국

- 프 랑 스 : 파리

- 루브르 박물관 견학
- 파리 하수도박물관(Musee des Egouts de Paris)견학
- 파리 신도시 라데팡스(LADEFENSE) 견학

- 스 위 스 : 취리히, 루체른

- 취리히 Rebwies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방문
- 취리히 KVA 쓰레기 소각장 방문

- 이탈리아 : 밀라노, 피렌체, 로마

- 성베드로 대성당
- 카타콤베 : 뿔박받은 종교인들의 지하무덤

□ 연수자 명단

연 번	소 속 위 원 회	성 명	비 고
계	15명(의원11, 직원4)		
1	기획행정위원회	허 복	부의장
2	"	이 정 임	위원장
3	"	박 세 채	의 원
4	"	윤 서 규	"
5	"	이 갑 선	"
6	"	구 자 근	"
7	"	길 윤 옥	"
8	산업건설위원회	김 영 호	위원장
9	"	박 교 상	의 원
10	"	임 춘 구	의 원
11	"	박 순 이	의 원
12		정 완 진	행정6급
13		강 정 숙	행정7급
14		강 천 호	기 능 직
15		문 수 진	"

□ 연수 일정

월 일	지 역	교 통	시 간	견 학 장 소	주 요 연 수 내 용
제1일 (4. 30)	인 천 파 리	KE5901	09:55 14:40 18:00	• 루브르 박물관	• 인천 → 파리 • 주요 문화유산 보존 실태 견학
제2일 (5. 1)	파 리	버 스	09:00 18:00	• 나폴레옹의 개선문 • 몽마르뜨 언덕 • 예수성심 성당 외	• 도시 환경 견학 • 주요 문화 유적지 견학
제3일 (5. 2)	파 리	버 스	09:00 18:00	• 파리 하수도 박물관 • 파리 신도시 라데팡스 • 베르사이유 궁전	• 하수행정 및 도시행정 견학 • 주요문화유적 보존 및 관리실태 견학
제4일 (5. 3)	파 리 베 르 취리히	T.G.V 버 스	06:00 12:34 18:00	• 취리히 노인복지시설 • 취리히 시청 및 주의회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견학 • 도시 환경 관리 실태 견학
제5일 (5. 4)	취리히 루체른 밀라노	버 스	09:00 13:00 18:00	• 취리히 주내 쓰레기 소각장 • 카펠교 • 빈사의 사자상 • 밀라노 시청	• 환경시책 및 관리 실태 견학 • 주요 문화 유적지 관리 실태 견학 • 자치단체 시설 견학
제6일 (5. 5)	밀라노 피렌체 로 마	버 스	09:00 18:00	• 피렌체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 • 시노리아 광장 • 미켈란젤로 언덕	• 관광자원화 시설 견학 • 르네상스 문화 체험 • 도시환경 관리 실태 견학
제7일 (5. 6)	로 마	버 스 KE 928	09:00 20:10	• 로마 시청 •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 포로로마노 유적지 • 트레비분수 • 카타콤베(지하 무덤)	• 주요 문화 유적지 및 문화 유산 보존 실태 견학 • 로마시대 문화 체험 • 로마 출발
제8일 (5. 7)	인 천		14:05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연수국 소개

□ 프랑스

○ 개 요

프랑스는 서독, 이탈리아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영국과는 해협을 끼고 마주 보는 유럽의 중심국이다. 프랑스인들은 신으로부터 비옥하고 다양한 대지와 평온한 기후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의 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이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중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12세기 초 LES CAPETINS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1358-16세기 까지는 LES BOURBONS 왕조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유적들도 부르봉 왕조시대에 건축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몰락되고 말았으며 제 2의 전성시대인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파리 코뮌느, 양차 대전을 치룬 뒤 1958년 드골의 제 5공화국이 세워졌다. 이들은 자국어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며, ‘에스까르고’라는 달팽이 요리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국기는 청, 백, 적색의 3색 기인데, 프랑스 혁명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 박애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 보장제도가 잘 실행되고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와는 1949년 정식 수교를 맺었다. 예술과 패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나라이다. 뛰어난 과학기술, 스포츠 강국으로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는 한편 전 세계에 만연된 미국문화로부터 가장 강하게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 지 리

총 면적 547,026km²로 서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프랑스는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1천 1백만 km²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넓은 영해를 가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2/3가 평야이며,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 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등의 산맥을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경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또한 북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4개의 바다와 접해있는 프랑스는 5,500 km²에 이르는 연안을 가지고 있다.

○ 기 후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 찬 날씨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 사회 문화

선주민은 켈트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합 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되었다. 전인구의 7% 정도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 경 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 국가 중의 하나이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 주요 문화 유적지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궁전은 800년에 걸치는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중세의 성에서 프랑스의 역대왕의 궁전까지, 혹은 200년 이후에는 미술관으로서의 그 건물양식이 발전해 왔다. 원래는 궁전으로서 중세부터 프랑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궁전보다는 미술관으로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1793년에 프랑스 공화국에 의해 설립된 루브르미술관은 애슈몰린 미술관 (Ashmolean Museum, 1683년) 과 드레스덴 미술관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1744년) 그리고 바티칸미술관 (1744년) 등으로 나열하며 유럽에서도 최대최고의 미술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루브르는 원래 미술관으로 사용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마리 4세가 1671년에 그랜드 갤러리를 1층에 열었다. 미술과 예술품에 박식했던 그녀는 "고대의 방"과 왕의 덧상실과 왕의 회화실을 두었고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1747년 왕의 컬렉션들을 감상할 수 있는 "뮤즈의 궁전"으로 불리 우면서 박물관의 역할이 부각 되었다고 하니 그 옛 부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에는 페이가 설계한 유리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루브르를 대표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브르의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 말하자면 다 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토라케의 "니케", 들라크르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등등 헤아릴 수 없는 유명한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유리 피라미드를 좀 더 지나면 1805년 나폴레옹의 승전을 기념하여 베니스에서 빼앗았다가 1815년 워터루 전투의 패배로 돌려준 산마르코의 네 마리 말들을 조각한 카루젤 개선문도 볼거리이다.

개선문



지름 240m의 원형 광장에 서 있는 높이 50m의 건축물로 프랑스 역사 영광의 상징인 개선문 (l'Arc de Triomphe)은 콩코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2.2km 거리에, 샹젤리제 거리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 개선문과 그 주위를 둘러싼 샤를르 드골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샹제리제를 비롯해 12개의 대로가 이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광장이 에트왈(etoile: 별, 방사형의) 광장으로도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문은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1920년 이래로 1차 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중앙 아치의 밑에 묻히게 되었고 매일 저녁 6시 30분에는 이 들을 기리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샹제리제 거리

샹제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Elysee)는 파리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이다.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상 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리도 극장도 이곳에 위치한다.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르 언덕은 로마교회와 관련해서 종교적 의미를 띠면서도 이곳에서 시대에 따른 미술 사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 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주거지역이기도 하면서 역사,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여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 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연간 600만에 이른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켠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영화 촬영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예술적 모습을 띄는 지역이 밤에는 환락가로 변하여 여성이 혼자 걷기에는 불안할 정도이다. 언덕을 내려와서 Clichy 대로가 있는 주변이 그러한데 많은 영화관, 극장, 술집들이 자리하고 몰랑루즈가 위치한 곳도 이 곳이다.

성심성당 (La Basilique du Sacre-Coeur)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언덕의 정상 부분에 페르뜨르 광장과 베드로 성당 북쪽의 조금 낮은 쪽에 위치해있다. 이 성당은 진정한 신이자 인간인 예수의 성심(聖心)에 바쳐진 교회당으로, 1885년부터 그 경배의 행렬이 밤낮으로 줄을 이어,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성당의 일과에서 가장

에펠탑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m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이다. 탑 아래 위치한 샹 드 마르스 공원 왼쪽에는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는 앵발리드, 그 근처에는 로댕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상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건너편 샹시오 박물관에서 보는 에펠탑의 야경은 장관이다.

노트르담 대성당(Cathedral Notre Dame de Paris)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노트르담(Notre Dame)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 지어진 성당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유명하다.

파리의 발상지인 시테섬의 동쪽 끝에 있는 파리의 상징적 건물로 1163년에 기공해 182년 만에 완성되었고, 800년의 프랑스 역사가 담겨 있다. 성당 내부에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수많은 조각들이 있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4가지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인 장미창이 유명하다.

베르사이유 궁전(LE CHATEAU DE VERSAILLE)



파리 서남쪽 23km에 있는 절대주의 왕권의 영화를 상징하는 대궁전이다. '짐은 국가다' 라고 했던 루이 14세가 20년에 걸쳐 세운 궁으로 이후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안트와네트가 호사를 누리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비운을 맞았다. 건물의 규모, 절대왕정의 예술품, 100ha 나 되는 대정원이 유명하다.

□ 스위스

○ 개 요

스위스의 기원은 4C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 스위스 원주민인 헬베티아 족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서 현재의 원형을 이루었다.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3C에 이르러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벗어나 1648년 빈 회의를 거쳐 영세 중립국으로 승인되었다.

2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수도 베른에 연방정부가 있다. 스위스 정치의 특색이라면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 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들, 시계공예가 유명하다.

○ 지 리

면적은 약 41만1천km²로 남한의 반 정도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등의 국가와 접해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그 옆으로는 제네바, 루체른, 쥐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 론, 다뉴브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 기 후

6-9월초까지는 여름으로 30℃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며 아침·저녁으로는 영하로 내려가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다. 겨울인 11-4월말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엄습하지만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지내기 좋은 기후이다. 북부 평원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상쾌한 편이며 알프스 이남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다.

○ 사회 문화

인구는 약 750만 명으로 게르만계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그 외에 프랑스계, 이탈리아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며 공용어로는 독일어(중부와 북동부 지역), 프랑스어(서부), 이탈리아어(남부), 레토로만어(남부)가 쓰인다. 종교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50%씩을 점하고 있다. 스위스의 정치적 중심은 쾰리히, 바젤, 베른, 제네바였으며 이곳에서 스위스의 문화생활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궁중의 사치스런 예술이 아니라 스위스인의 미덕, 신중, 검소를 높이 평가하는 예술이었다. 애국심이 강한 스위스인들은 작은 국가지만 영세 중립국을 유지해 오고 있다.

○ 주요 문화 유적지

빈사의 사자상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 상(The dying Lion of Luzern)은 1792년 프랑스혁명 당시 파리의 퐁트리궁전에서 루이 16세의 왕가를 수호하다가 전멸한 스위스 용병786명의 용감한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1821년 세계적인 거장 덴마크인 조각가 베르텔 토르발드젠(Bertel Thorvaldsen)이 회색의 사암절벽에 새긴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의 전체의 크기는 43피트이며 사자의 상은 30피트 크기로 조각되어있다.

심장을 뚫고 나온 부러진 창에 만신창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음하며 누워있는 숫 사자 상, 그 숫 사자는 부르봉왕가의 문장인 흰 백합이 새겨진 방패를 죽어가면서도 발에서 놓지 않고 지키고 있는 슬픈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왕가를 사수하는 스위스용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조각상 위에 라틴어로 HELVETIORUM FIDEI AC VIRTUTI라고 쓰여진 글귀는 '스위스 사람들의 충성심과 용기'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 싸움에서 희생된 26명의 장교와 16명의 병사가 포함된 순직 병사들의 이름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다.

지금과는 달리 18세기경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스위스 나라 젊은이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돈을 벌기위해 용병을 가게 되었는데 특히 프랑스 황실의 용병으로 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근위병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이들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수적 열세를 무릅쓰고 루이 16세를 끝까지 호위하며 혁명군과 싸우다 전멸한 충성심과 신의를 지킨 스위스 젊은이들, 이들의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오늘날 스위스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현재도 베드로 대성당의 근위병은 스위스 용병만 쓴다고 한다.

까펠교

까펠교는 빈사의 사자상, 무제크 성벽과 함께 루체른의 상징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인 까펠교는 1,333년 처음 건조되었다.



다리 지붕 안쪽은 17세기 화가 하인리히 뵘크만(HEINRICH WAGMAN)이 널빤지 위에 그린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총 112장에 이르는 그림들은 루체른의 역사가 옮겨져 있다.

【 카 펠 교 】

다리 중간에 있는 저수탑 바서트룸(WASSETURM)은 루체른을 지키는 요새의 일부로 보물, 문서보관소와 감옥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때 이 다리는 로이스강과 피어발트슈퇴터 호수를 따라 만들어 졌던 호프 다리 HOF-BRUCKE (1265~1854년)를 지나 호프 교회까지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150년전 호프교회가 화재로 소실 되면서 까펠교만 외로이 남게 되었다.

또한 1993년 화재로 인해 다리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지금의 입구쪽만 초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 이탈리아

○ 개 요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장화처럼 뻗어 나와 있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줄리어스 시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2차 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 지 리

유럽대륙으로 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km의 반도국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사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45km²로 한반도의 약 1.4배 정도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해에 면해 있다.

○ 기 후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닌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기가 없다

○ 사회 문화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 카톨릭 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로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특색 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 주요 문화 유적지

두오모 성당

시내 중심에 있는 이 광장을 축으로 1-2km 안에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시당국의 계획으로 1862년 건축가 주세페 멘고니가 조성했다. 중앙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기념비가 서 있고, 밀라노 시민의 휴식 장소로 애용된다.



【 두 오 모 성 당 】

두오모 대성당은 3159개의 거대한 조각군으로 장식되어 있고 100m 높이의 유리첨탑이 하늘로 치솟아 있다. 길이 157m, 높이 108.5m로 바티칸의 산 피레트로 사원에 이어 세계적으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386년 잔 갈레아치오 비스콘티 공작의 명으로 착공되었으며, 450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어 19C 초에 완공되었다.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



거리의 중심을 향하면 눈앞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능한한 장엄하게, 더욱더 화려하게"라는 말처럼 175년, 엄청난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당은 어떤 외진 곳에서도 아치형 돔의 일부분이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하다.

성당의 광장에는 관광객을 위한 마차가 준비되어 있다. 1292년에 착공되어 1436년에 완공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이다. 감비오(Arnolfo di Cambio)가 설계를 하였고, 106m의 높이를 자랑하는 돔은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작으로 1420년 착공 후 14년간 이 건축 공사에 종사했으며 사후 1461년에 완성을 보았다.

미켈란젤로 언덕 (Piazzale Michaelangelo)



미켈란젤로 광장은 도시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피렌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절호의 지역이다. 두오모를 비롯해 베키오 다리가 인상적인 이 광장은 아르노강 남쪽 기슭의 언덕위에 조성되어 있다. 이곳 광장의 곳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다비드상"등의 복사 품들이 서있다.

시뇨리아 광장(Piazza della Signoria)

중세 이래로 피렌체의 중심인 시뇨리아 광장은 오늘날까지도 피렌체 사람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모으는 정치적인 연설과 시위의 장소로 남아있다.

광장에는 복제품을 비롯한 많은 예술작품들이 즐비해 있어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곳곳에서 거리의 판토파임이 열리고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베키오 궁(Palazzo Vecchio)

1982년 피렌체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시뇨리아 광장에 면해있는 고딕 건물로 높이 94m에 달하는 종탑이 있다.

1299년에서 1314년에 걸쳐 캄비오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그 이후에는 몇 번이나 재건축 되어서 현재의 모습을 이룬 것은 16세기 경이 된다고 한다. 피렌체 공화국의 중앙 청사였던 건물로 현재도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궁전의 입구에는 미켈란젤로작"다비드상"의 복제품이 있으며, 2층에는 공화국 정부의 회의장 이었던 대형 홀이 있다. 홀의 양쪽 벽면에는 메디치의 전투장면 회화가 장식 되어 있고 호화로운 교황 레오 10세의 거실과 메디치가의 사람들이 거쳐했던 방도 보존되어 있다.

3층에는 "백합의 방"이 있는데 피렌체의 심볼인 백합의 꽃모양이 새겨져 있다. 엄격한 고딕양식의 외부와 우아한 내부 장식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마키아벨리의 초상화와 미켈란젤로에 의해 15세기에 개수된 정원에 16세기의 바자리에 의해 섬세하게 장식되었다고 한다.

중앙의 아기천사 분수는 베로키오 작으로 원본은 칸첼레리아에 보존되어 있고 현재의 조각상은 모조품으로 대신한 것이다.

단테 생가

두오모 성당에서 시뇨리아 광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에 단테의 초라한 생가가 있다. 현재 이곳이 단테의 생가였다는 증거는 벽에 붙어있는 단테의 토르소가 전부이다.

그가 이탈리아에 남긴 유산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현재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다.

트레비 분수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분수 설계 공모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당선된 니콜라 살비의 작품이다.

1732년에 착공하여 1762년에 완성되었으며 분수의 아름다운 배경은 나폴리 궁전의 벽면을 이용한 조각으로 이루어져있다.

로마시대에서 볼 수 있는 바로크 양식의 마지막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분수 중앙에 자리한 해마가 끌어올린 커다란 조개 위의 넵툰신과 트리톤신의 대리석 조각들은 브라치의 작품이다. 이 분수의 물은 '처녀의 샘'이라고 불리 우는데, 이는 전쟁에서 돌아온 목마른 병사에게 한 처녀가 샘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샘을 수원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전설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오길 소원하며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스페인 광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등 뒤로 동전을 던져 한번 던지면 로마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두 번 던지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 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전설이 있는 분수로 이곳의 동전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자선사업에 쓰인다.

원형경기장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로마의 상징이며 거대한 원형경기장으로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콜로세움 주변(Piazza del Colosseo)은 콜로세움과 포로로마노등의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네로의 궁전의 뜰에 있었던 인공연못에 AD 7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80년에 완성된 대형 원형투기장 겸 극장이다.

생사를 겨루는 검투사와 짐승과의 격투기 등이 여기에서 개최되었고 80개 정도가 되는 출구에 5만 5000명도 넘는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다. 네로 통치시대를 영화로 한 "퀴바디스"에서는 기독교도의 박해장으로 사용된 콜로세움 장면을 잘 보여준다.

고대 로마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최대지름 188m, 최소지름 156m, 둘레 527m, 높이 57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이다. 콜로세움은 거대하다는 뜻으로 근처에 거대한 네로상이 있어서 이름 지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진실의 입



6세기에 고대 로마의 식물시장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에 지어진 건물로, 이곳에 진실의 입이 있으나 이것은 기원전 4세기경쯤 하수도의 기단이었다고 전해진다. 보카 델라 베리타 광장에 있는 것으로 보카는 입, 베리타는 진실을 의미한다. 이 광장에 있는 산타 마리아 코스메딘 성당의 입구

한쪽 벽면에 진실을 심판하는 입을 가진 얼굴 모양이 있는데 강의 신 홀르비오의 얼굴을 조각한 것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그레고리팩과 오드리햅번이 주연한 코믹 로맨스 영화 '로마의 휴일'로 더욱 유명하다.

포로로마노 (Foro Romano)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로"라는 뜻은 공공 광장이라는 의미로 또한 "포럼"이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상업, 정치, 종교 등의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관의 모든 것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로마의 중심지로서 로마제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쇠퇴와 멸망이라고 말하는 로마 2500년의 역사의 무대가 되었고 중심이 되는 곳을 제외한 많은 건물들이 283년에 대화재로 소실되었다. 바실리카 에밀리아 (Basilica Aemilia)와 시저 신전(Templum Caesar), 원로원(Curia), 개선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아치, 새턴신전, 바실리카 율리아, 베스타신전, 베스타신녀의 집의 흔적, 카스토르와 플루스 신전, 로물루스의 신전, 콘스탄티누스의 바실리카 등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카타콤베 (Catacombe)



그리스도 교도들이 숨어 지내던 지하무덤.

로마인들의 지하 무덤으로 기독교 공인 전에 그리스도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지하교회나 무덤을 카타콤베라고 부른다.

이 장소는 16~19C에 걸쳐 재발견 되었으며, 귀족 가문의 소유였던 지하 매장실로부터 여러 층으로 도니 긴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카타콤베 중 로마 부근의 것은 지하통로의 길이가 500km 이상 되기도 한다. 또한 카타콤베에는 원시 기독교 예술의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는 조각, 그림, 형상들이 새겨져 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성당 정문계단 앞에는 성 바오로상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성 베드로의상이 보인다.

이 열주회랑의 생김새는 예수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낸 형태이다.

성당 중앙의 대 '쿠로라'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 2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곳에는 황의 제단이 있으며, 베르니니의 동 천개로 덮여 있다.

성당 내부의 6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홀은 길이가 현관을 포함하여 211.5m이며, 천정높이는 45.44m이다. 대성당 중앙 끝의 창문에는 말개의 길이가 1.5m인 '성령의 비둘기'가 장식되어 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Pieta)'상이다. 이는 그가 21세 때 만든 조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상이다. 당시 시대로는 인체의 비율을 깬 파격적 조각으로 당대 예술가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성 세바스틴 소성당'은 17세기 모니카노 작품을 복사한 '성 세바스틴의 순교'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제단 왼쪽에는 성체를 모시는 감실이 있으며 그 뒤쪽 벽에는 피에트로 다 코르토의 유화작인 '삼위일체'가 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베드로 성당의 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다. 돔 밑에는 모자이크로 된 4복음서 저자인 마르코, 루가, 마태오, 요한의 초상화가 네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성당의 돔의 위용 압도되어 마르코가 들고 있는 펜은 길이가 무려 1,65m나 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작게 보인다고 한다.

베드로의 묘 앞에 꿇어앉아 있는 동상의 주인공은 교황 비오 6세이고 이 안쪽 상부에는 비둘기의 스테인드글라스, 그 아래에 베르니니의 거대한 '성 베드로 의자'가 있다.

성 베드로가 사용했다고 하는 나무 의자도 있으며 왼쪽 계단은 교황의 지하 묘로 향한다. 맨 처음 베드로의 무덤에 성당이 세워진 것은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이다.

당초에 세워진 바실리카식 성당은 그 후로 1200년이 지나 낡게 되자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217대 교황)에 의해 개축이 시작되었다. 공사기간 중 면죄부의 남발과 종교개혁 파동으로 공사가 부진한 적도 있었으나 미켈란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작품이 진행되어 마침내 1626년 11월18일 교황 우르반 8세 때 준공되었다.

12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미켈란젤로의 설계와 구상, 그 제자 델라 포르타와 카들로 마데르소가 옥상 돔과 성당 정면 부분을 완성함으로써 완공된 것이다.

Ⅲ. 연수국 주요 방문지

□ 파리 하수도 박물관



역사적으로는 1200년경에 필립 오귀스트가 설치한 하수도는 개천 하수도이었고, 최초의 복개 하수도는 1270년경에 나타났다고 한다.

나폴레옹 3세 때 이르러 파리 시내 재개발을 하면서 벨 그랑이라는 토목 기술자에 의하여 근대식 하수도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현재 파리 시내에만 약 2,100킬로미터의 복개 하수도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도로의 모퉁이에 길거리 이름과 번지수가 있듯이 지하 하수도 통로에도 지상과 똑같은 주소가 있다는데 수리공이 지나가면서 각 건물의 배수 구멍을 보노라면 누구네 집의 하수도가 막혔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파리 시내에만 100미터 간격마다 동그란 맨홀 뚜껑이 26,000개가 있는데 무려 80~120KG 이나 나가는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는 유사시에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생활 하수와 우수, 거리를 청소한 물이 쓰레기더미와 함께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러한 쓰레기를 분해 하는데는 쥐 들이 큰 몫을 담당한다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아니더라도 세느강가에 있는 하수도 박물관에 방문하게되면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보도와 인도 사이의 턱을 자세히 보면 길쭉한 반달형의 구멍이 있는데, 바로 이곳으로 모든 쓰레기를 모아 물길을 따라 하수도 구멍으로 잘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900명의 인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의 구조는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기본 하수도 망은 지름이 1.2M 의 관으로 약 1,300KM 가 깔려 있고 각 건물의 생활하수는 지름이 2M 정도의 보조 하수도로 흘러 모인다.

세느강 좌안과 우안에서 나온 하수도 뿐만 아니라, 빗물도 모두 지름이 2.8M나 되는데 하수관으로 모아서 서북쪽으로 30KM 떨어진 아쉐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처리 공정을 완전히 통과한 다음에 약 80%의 물이 세느강으로 깨끗한 상태로 흘러지고 나머지 20%의 물은 파리 시내를 청소할 때 이용하기 위하여 다시 파리 시내로 갖고 나온다고 한다.

□ 파리 신도시 라데팡스



프랑스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라데팡스는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단지로, 현대식 사무용 고층 빌딩과 다수의 공원, 주거지가 복합 구성되어 있다.

라데팡스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상제리제와 개선문을 지나 네이 다리 (Pont de Neuilly)를 통과해서 현 라데팡스 신개선문까지를 잇는 직선 대로, 소위 ‘역사의 축’ (Historical Axis) 상에 건설되어있다.

라데팡스는 ‘오 드 센느’(Hauts-de-Seine) 데파르트망 산하의 뽀또 시 (Commune de Puteaux), 꾸르브브와 시(Commune de Courbevoie), 낭테르 시(Commune de Nanterre)의 세 개 자치시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그 넓이는 160 헥타르에 이른다고 하였다.

1958년 라데팡스 개발청 (EPAD)이 설립됨으로써 본격화된 신도시 개발은 "라데팡스 2015계획"에 의해 본격화 되었으며 “라데팡스 2015” 계획은 다수의 초고층 빌딩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의 낡은 빌딩을 보수함으로써 총 850,000m² 면적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100,000m² 의 주거 공간을 확대하며 이에 걸맞는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파리 서쪽 지역에 230만평 규모로 1958년에서 1994년에 걸쳐 조성되었다고 한다.



라데팡스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낡은 판자 집과 작은 공장 등이 있는 빈민지구에 불과했으나 수도의 중앙 집중을 완화하려는 원칙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파리의 역사성과 전통미는 상업적인 건축물 건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1958년에 드골 정권의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근교도시 중 하나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결정 하였다고 한다.

수도 파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사무실, 상업, 호텔, 주거,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며, 파리 도시축을 연결한 중심축의 형성과 고층화, 입체의 개념에 따라 건축하고, 미디어 산업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정보통신, 미디어 예술문화를 중심으로라는 개발 목표를 가지고 건립된 계획된 신도시라고 하였다.

신개선문 모양의 승강기 등 고도 파리와 진취적인 현대 모습이 잘 어우러지게 설계되어 관광객은 물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장으로 찾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곳은 미래형의 계획도시로 차량의 이동과 주차 등은 도시의 지하로 이동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차량의 이동이나 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 Rebwies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스위스의 노인인구는 1900년 이래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1900년 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5.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0년 9.6%로 증가하였고 1990년의 경우 약 14.5%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2020년에는 전 체인구의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스위스의 노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스위스 사회보험체계에 의한 노령, 유족연금 및 직업연금 등의 지급과

함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에 기인한다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위스 정부로부터 보충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970년 이전에는 자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이 주요 정책 과제였다고 한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중 7.5%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8%는 노인의 집에 2.0%는 병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분산요양소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는 6-8개의 움플랫으로 구성되어 5-7명의 거주자들이 주야로 보살핌을 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가족적 분위기 이전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는 점, 저투자비용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방문한 시설은 쥘리히시 근교에 있는 Rebwies 양로원이다

이 시설은 시에서 건립하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양로원이다. 이 시설의 입소 인원은 96명이고(90% 여성), 시설종사자는 비상근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시설 관리자등 총 34명으로 입소인원에 비해서 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시설의 입소는 규정상 여성 64세 이상, 남성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입소되는 나이는 평균 83세 정도로서 신청 후 대기 기간이 3년정도 걸린다고 한다.

노인들이 찾기 쉽도록 층수를 색깔로 구분하여 놓았으며 거실 및 복도 등이 청결하여 호텔을 연상케 했다. 거실의 내부 시설은 입소자들이 직접 가구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둘러본 방들의 인테리어 수준이 상당히 함을 느꼈다.

식단은 보통식, 채식,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식사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카드를 탁자위에 놓아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식탁 옆에는 지팡이 쏘이대가 비치되어 있는 등 세심한 배려가 눈에 들어 왔다.

입소비용은 입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경제적 능력이 낮은 노인은 정부에서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한다. 간병인 등 보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입소 당시에는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해야 입소가 가능하나 입소 후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임종시까지 시설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하였다.

□ KVA 쓰레기 소각장 방문

스위스 주민들에게 쓰레기의 재활용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고 한다. 각 가정마다 재활용 쓰레기 보관함이 비치되어 있고 가정에서 모은 재활용 쓰레기는 집 주변에 있는 재활용 수거함에 종류별로 구분돼 수집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재활용 정신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자원의 재활용 방법을 몸으로 직접 익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민정신이 오늘날 스위스가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재활용률 40% 달성이 멀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저 버리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쓰레기 재활용률이 3%도 안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취리히 시의 쓰레기 분리 수거체계는 주민이 직접 수거함에 갖다 놓는 경우와 수거차에 의한 수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신문의 경우 월 2회

따로 묶어서 집 앞에 내다 놓으면 수거해 가며 골판지는 월 1회 수거해 간다고 한다. 정원의 나뭇잎 등 유기성 폐기물은 수거해서 시가 운영하는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며 대형쓰레기는 시에 전화하면 주민이 20프랑의 실비를 부담하고 처리를 의뢰하면 된다고 한다.

취리히시의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재정구조를 보면 종량제 실시후 처음에는 수입이 증가되다가 점차 쓰레기 양이 줄어 들면서 수입이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수거비용은 1톤당 약 500프랑이 소요되며 수거비닐봉투는 70%정도를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수거비닐 봉투에 의한 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봉투는 수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연수단 일행이 방문한 KVA 소각장은 10개 마을을 묶어서 공동 투자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설비가 1억프랑(6천만 유로) 투입된 작지만 최신식 기계로 설비되어 있는 이 소각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연방정부로부터 30~40%정도의 보조를 받았다고 한다. 10개 마을 주민이 10만명인데 1년에 1만 5천톤의 쓰레기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고, 줄이고,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처리하고 남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각장의 소각 처리 능력은 1년에 6만톤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마을 주민들이 발생시킨 1만 5천톤 이외에 4만 5천톤은 다른 지역 것을 소각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한다. 주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없다고 하였다.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여 10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기 사용량의 10%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쓰레기의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들도 소각장으로 직접 반입할 수가 있다고 한다.



스위스(취리히)의 쓰레기처리 현황을 보면 주방에서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 수집용기가 시판되고 있으며 퇴비화, 가스화를 하기 위한 유기성 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폐기물을 다음 원칙하에 재활용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각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퇴비 등을 보급 사용하는 자가 퇴비화, 퇴비공장에서의 퇴비 생산.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와 잔디 등 수분함량이 높은 유기물은 가스화 추진하는 공동 퇴비화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음식점에서는 육류쓰레기는 별도로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가고 과일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거하여 가열 처리 후 돼지먹이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소각처리 한다고 하였다.

□ 로마시청 방문

roma를 거꾸로 하면 amor! 사랑의 도시 '로마'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전한 채 현대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줌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군사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神)인 마르스와 인간인 레아 실비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레무스(REMUS)와 레물루스(ROMULUS)에 의해서 건국 되었다고 한다. 태어난 후 테베레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를 암 늑대가 젖으로 키웠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와 같은 로마를 세운 시조로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이다.

테베레강 하류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의 도시'이다. 이탈리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바티칸은 카톨릭의 총본산으로 카톨릭과 관계된 국제적인 연구·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로마의 주요산업은 관광업으로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였다.

고대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육지,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로마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모든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 카타콤베(뽕박받은 종교인들의 지하무덤) 방문

“안식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타콤베는 중세까지만 해도 지하묘지로서 알려진 것은 이 묘지뿐이었으나, 16세기에 초기 그리스도 교도의 지하묘지가 발견되고부터는 모든 지하묘지를 카타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로마의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무덤을 땅 위에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그리스도가 공인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으로 기독교가 공인 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박해는 끊이지 않았고 박해를 피해 지하로 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카타콤베는 지하 10-15m의 깊이에 대체로 폭 1m 미만, 높이 2m 정도의 통로를 종횡으로 뚫어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다. 구아피아 가도 부근에는 대소 25개의 카타콤베가 있고 지하통로의 길이를 합치면 500Km나 된다고 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은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로서 5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통로의 길이는 20Km이다. 이 곳에는 3세기의 교황의 유골이 모두 모셔져 있고 음악의 수호성자 성체칠라아의 묘도 있다.

카타콤베의 형태에는 로쿨로, 포르마, 아르코솔리오, 쿠비콜로, 크립타등의 5개로 나뉘어진다.

로쿨로는 카타콤베 내부의 가장 많은 무덤 형태로 내부의 지하 통로 양쪽으로 벽처럼 되어 있는 곳에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파 죽은 사람을 구멍안에 눕혀 놓고 그 위에 천만을 덮고 무덤을 가리기 위해 뚜껑으로 막은 것이다. 포르마는 규모가 큰 공동 무덤이 있는 곳의 땅에 마련된 무덤이다. 아르코솔리오는 3-4세기에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카타콤베 내부 무덤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이다. 쿠비콜로는 가족묘지로 사용되었으며 내부 벽 위에는 벽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마지막 크립타는 카타콤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소이며 이 곳에는 주로 순교자 교황 또는 성인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IV. 연수 후기

어려운 지역경기와 일부 타 지역 해외 연수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우리 보다 앞선 선진국을 돌아보는 연수과정을 통해서 시정 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우리 연수단은 6박 8일의 일정으로 서유럽 연수길에 올랐다.

생생한 현지방문, 체험위주의 일정을 통해 선진국 시민들의 현지 모습을 알고자 많은 곳을 찾았으며, 연수 기간 중 도시환경 조성,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많은 현장을 방문하였다.

100년 넘게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정신과 개념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파리는 도시계획가, 조경전문가, 건축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가꾸어진 도시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파리의 도시계획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용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에 따라 치밀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 계획이 바뀌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한다.

특히 파리의 도시 계획은 천년을 내다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며 이들이 항상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도시기능과 미를 염두에 두며 철학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했다. 이런 부러운 이유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파리로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덩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석조 문화가 발달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과거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늘날 건축물 하나하나에도 증·개축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다. 또 도심속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몫 하는 것 같았다.

이 여유로움은 버스나 공원 벤치 등 곳곳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들 속에서 감춤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인 산지를 개발하여 초지를 만들고 만년설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만든 스위스 인들,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된 것은 비슷한 처지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모습이었다.

이번 서유럽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부유한 이곳 현지 국민들의 대부분이 소형차를 이용하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 연수단은 서유럽 3개국을 보고 느낀 것을 접목시켜 우리 구미시가 선진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 보고를 마칩니다.